

근대건축, 부산에서 만나다

Meet Modern Architecture in Busan

국가등록문화재 제41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Provisional Government Building,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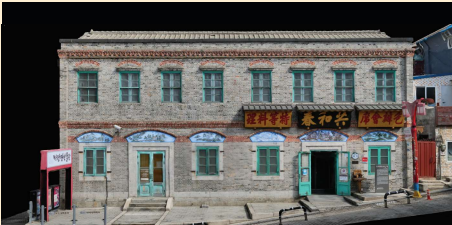


1925년 경남도청으로 건립된 후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사용했다. 이후 부산 지방법원 지방검찰청을 거쳐 2009년부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국가등록문화재 제246호

인천 선린동 공화춘

Gonghwachun Restaurant in Seollin-dong,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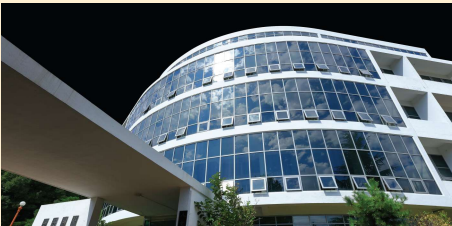


1908년 개항 이후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 산둥지방의 장인이 지은 중정형(中庭型)의 중국식 건물로 중국요릿집이었다. 현재는 짜장면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41호

부산대학교 구 본관

Former Main Building of Pusan University, Busan



부산대학교 구 본관은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의 작품이다. 그의 초기 건축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 중 하나이자, 한국 초기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건물로 건축사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등록문화재 제16호

광주 전라남도청 구 본관

Former Main Building of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1925년 건립 이후 70년 이상 전라남도청으로 이용되었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산 현장으로서 전남지역 근현대사의 역사적 장소이다.

국가등록문화재 제585호

서울 기상관측소

Seoul Meteorological Observatory,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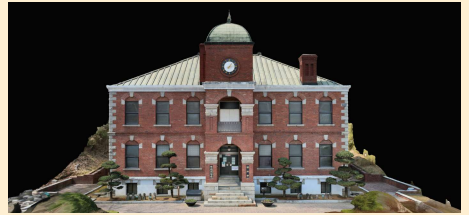


1932년 경기도립경성측후소 청사로 건립되어, 해방 이후 국립중앙관상대로 사용되다 현재는 서울 기상관측소이자 국립기상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53호

서울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회관

Former Building of the North and West Educational Association at Konkuk University, Seoul



민족애국단체 '서북학회'의 회관으로 1907년에 건립되어, 1946년 건국대학교의 모체인 조선정치학관이 창립되었다. 현재 건국대학교 기념관과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국가등록문화재 제257호

봉화 척곡교회

Cheokgok Church, Bonghwa



대한제국기 탁지부 관리를 역임한 김종숙(1872~1956)이 관직을 사임한 후 1910년에 건립한 교회다. 한국 기독교 건축 초기의 공간구성과 구조 외관을 보여준다.

체험방법

1인 체험용 콘텐츠입니다.
한 분씩 입장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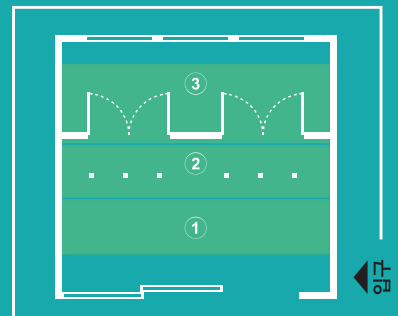
①번 위치에서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②번 위치로 다가가 보세요.

건축물 외부 모습이 나타나며,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③번 위치로 한 걸음 더 이동해보세요.

건축물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좌우 움직임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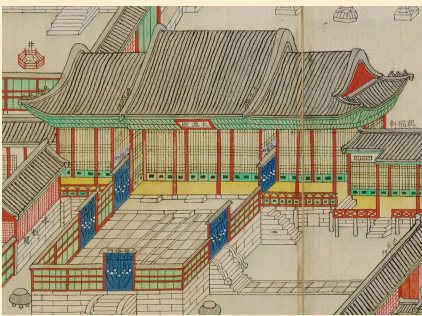
동궐이야기 - 효명의 일생 I

The story of Eastern Palaces - Prince Hyomyong's life I

효명세자孝明世子 이영李甯(1809-1830) 자:덕인(德寅) 호:경헌(敬軒), 학석(鶴石), 담여헌(淡如軒) 시호:효명(孝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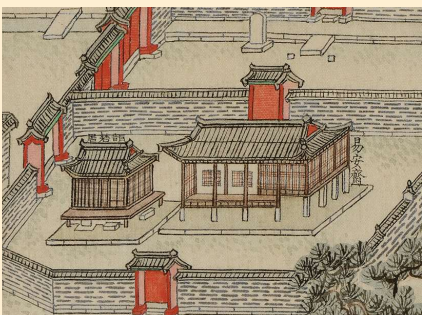
조선왕조의 철저한 기록 정신으로 탄생한 동궐도 창덕궁과 창경궁 모습을 그대로 옮긴 아름다운 회화식 궁궐지도 속에서 효명세자의 삶을 따라가 본다.

대조전 | 大造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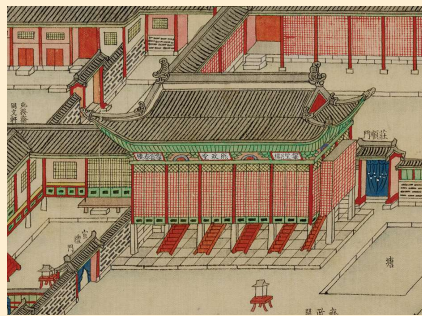
왕과 왕비의 침전으로 '큰 공업功業을 이룬다'의 뜻을 지닌 '대조大造'는 흔히 지혜롭고 현명한 왕자의 탄생을 뜻한다.

이안재 | 易安齋



효명세자의 서재를 지어 책을 읽고 시를 썼다. 석거시설, 의두합의斗閣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동궐도에는 이안재로 쓰여 있다.

희정당 | 熙政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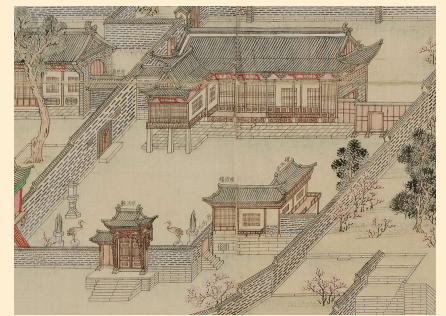
임금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던 편전便殿이다. 창덕궁 내 선정전이 대편전, 희정당은 소편전의 역할로 소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했다.

사가정 | 四佳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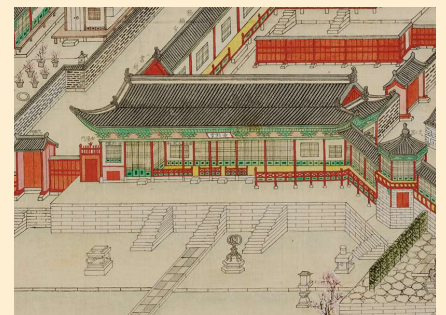
동궐도 후원 왕들이 쉴 수 있는 금단의 공간에 위치한 효명세자가 즐겨 머물며 시를 지은 정자이다. 갈대나 잔가지로 담장을 둘렀고, 문짝 없이 열려 있는것이 특징이다.

연영합 | 延英閣



효명세자의 거처로 왼편에 서재로 사용한 문화각이 있다. 연영합에서 과거시험을 보인 일이 있고 합격한 유생들을 이곳에서 만나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중희당 | 重熙堂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시기 공식 집무공간 정전正殿 [세자의 공식 집무 공간]으로 효명세자가 신하들을 접견하고 정치활동을 행한 장소이다. 중희당의 뜻 또한 '거듭되는 광명이 빛나는 집'이라는 의미로, 왕의 뒤를 잇는 세자를 가리키고 있다.

· 전시기간 _ 2021.10.26.TUE - 12.27.MON · 관람시간 _ 9:30~17:00 · 휴관일 _ 공휴일, 월요일

· 제 작 _ 동아대학교 재학생 (김규리, 강호정, 김다빈, 김민, 박서영, 박해경, 백명주, 오예빈, 이소연, 이유경, 이은혜, 전해진, 조현하)